



국가표준(KS) 5대 전략추진분야 선정 추진

- 미래성장산업, 국민의 안전확보, 에너지개발, 국가인프라
 - 기술표준원은 2007년도 국가표준화 전략을 정책 이슈별로 분류하여 미래성장산업부문, 서비스산업부문, 국민생활 안전 및 편의 부문, 에너지개발부문, 국가인프라 부문 등의 5대 전략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이들 5대 전략추진분야에 대해 500여종의 국가표준 개발을 위해 기술표준원이 직접 표준을 개발하여 제정하던 것을 『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제도』 운영을 통한 관련 민간

전문 기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장연계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부문별 내용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제도:분야별 전문기관을 표준개발기관으로 지정·운영으로써 표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 미래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나갈 나노제품, 반도체, 차세대 자동차, 지능형 로봇, 바이오 등의 조기실용화 지원을 위한 미래성장산업 관련 표준제정 : 100여종

※ 예) 바이오의약품, 자동차용 블랙박스, 탄소나노튜브,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 문화산업, 서비스, 고령자·장애인 관련, 인체치수정보, 의료기기 등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관련 표준제정 : 110여종

※ 예) 재활운동치료기, 장애인용 보조기, 노인 요양시설, 영화, 사진 등

- 재난관리시스템, 실내 공기의 질, 가스용품 분야의 안전성 강화, 구조물 안전성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특정 유해물질 금지 등 환경관련 표준제정: 150여종

※ 예)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증방법, 실내 공기의 질, 재난관리 등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산업, 광물에너지 분야, 가정용 전기제품의 대기전력절감 등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관련 표준제정: 60여종

※ 예) 가정용 연료전지, 태양광에너지, 전자제품의 대기전력 등

- 물류유통, 산업설비, 정보보안 관리체계, 무선인식(RFID) 등 국가 산업인프라 관련 표준제정: 80여종

※ 예) 개인정보보호, RFID활용, 생체인식, 물류유통기술, 산업설비 호환성확보 등

○ 또한, 제정된지 5년이 지난 국가표준 중 2,000여종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국내 산업환경 변화내용의 반영을 통한 국가표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정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000여종의 국가표준을 보유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국가표준을 보유하게 되었다.

※ 주요 국가표준 보유수 : 프랑스 31,000종, 독일 29,583종, 영국 25,793종, 미국 9,915종, 일본 9,702종

○ 이들 국가표준은 KS규격 원문 열람, 최신 KS규격 제·개정에 대한 실시간 검색과 국가표준 개정요청 등은 국가표준정보센터 (www.standad.go.kr)에서 가능하며, 민간포털 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와 엠파스(www.empas.com)에서도 필요한 국가표준을 검색할 수 있음

□ 기술표준원은 압력밥솥의 폭발에 의한 위험을



압력밥솥 안전관리 강화

예방하기 위하여 강화된 안전관리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 압력밥솥 이렇게 써야 안전... =

- 노즐구멍 막힘 여부 확인 후 사용
- 최대 조리용량 준수
- 밥, 찜 이외 용도 사용 말아야
- 삼계탕 등 점성 강한 음식은 피해야

- 고무패킹 주기적 교환
 - 이상음(音) 날 경우 가열 멈추고 충분한 시간 뒤 개봉
- 현재는 압력밥솥을 제품검사에 의한 안전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병행하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 공장심사 : 제조설비, 품질관리 등 제조업체의 생산체제를 평가
- 제품검사를 위한 안전인증 기준도 안전장치 요건을 강화하여 “안전장치가 막혔을때도 증기가 새는 구조”로 제조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압력밥솥의 기계적인 안전성을 강화하고, 표시사항에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토록 하여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 압력밥솥 사고의 대부분은 용도 이외의 다른 조리기구로 사용하여 발생
- 금년초 발생한 압력밥솥 폭발사고 직후 압력밥솥 제조(수입)업체들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체들이 스스로 압력밥솥의 안전한사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민들을 위해서로부터 보호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 기술표준원은 압력밥솥을 비롯한 생활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안전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구매와 사용지침서를 개발·보급하며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시판품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농기계 부품 통일· 단순화 명령이행 실태조사

□ 기술표준원은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와 농민의 편리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부품에 대한 통일· 단순화 명령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금년 2월5일부터 14일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통일· 단순화 명령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 16조에 의해 부품호환성 확보가 중요한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 부품의 규격(치수·형상 등)을 통일· 단순화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임

- 주로 농기계 부품에 적용하는 이유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제조업체별로 각각 다른 부품을 제조·공급하게 되면 제때 구입이 어렵기 때문

□ 특히, 금년부터 통일· 단순화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기계 제조업체가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을 용자신청할 시에는 농림부 훈령에 의하여 용자심사에서 5점(5%)을 감점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지난해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용자 수혜업체중 통일· 단순화 명령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12개 업체로서 전체 수혜업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어 용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명령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농기계생산지원자금 : 년 400억 예산으로 제조업체에 3%의 저리로 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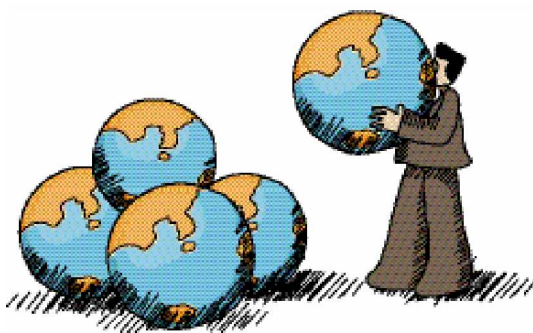
□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농기계수리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기계 수리센터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농기계부품 표준화 수요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 앞으로 부품 제조업체의 신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일·단순화명령품목을 늘려나가는 등 농기계의 표준화사업을 확대하여 제조업체의 원가절감과 사용자 편의를 증진하여 나갈 예정

□ 한편,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말부터 통일·단순화 명령제도 정책의 수혜자인 농민과 제조업체가 제도의 필요성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만화를 제작하여 전국 농협 및 제조업체에 배포한바 있으며, 현재 “농협” 및 “농민신문사” 홈페이지에 베너로 등록하는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독감·식중독·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의



피부자극성·기능성 첨가제 KS규격화 추진

용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 정보 미흡 제품이 시중에 유통, 소비자들의 물리적·신체적 피해가 우

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장비누와 손세정제의 경우는 단순 세정기능에서 벗어나 피부미용·보습기능, 항균/살균의 위생기능, 향(Fragrance) 및 허브화장품 기능이 강화된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성소다, 염소계 항균제 등이 함유된 제품은 소비자 상세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사용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예) 민감성피부, 아토피 피부와 같은 알러지 환자는 저자극성 천연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해야함

세탁용세제의 경우 저농축에서 고농축으로, 석유계원료에서 천연원료로, 세탁방식이 일반세탁기에서 드럼 및 드럼스팀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세제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선택이 중요하다. 세제에 함유된 표백제는 산소계, 염소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잘못 선택하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예) 알칼리성 염소계 표백제가 포함된 세제는 울(모직), 실크, 염색 옷에 사용하면 탈색되며, 누렇게 변한 울, 실크, 염색 옷에 사용하면 옷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약 알칼리성의 산소계 표백제 함유 세제가 적당함

지난해 생산업체들의 소비자 취향조사(30대 주부 500명 대상) 결과, 그동안 비누·세제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환경안전성(43%)에서 이제는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알러지와 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안전성(57%)이 중요한 생활용품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또, 소비자 53%가 상표에 천연, 저공해, 유기농의 표현을 보고 구매한다고 밝혔으며, 피해사례의 28.7%가 제조회사의 소비자 정보용 표시사항 불충분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모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게시물 744만개 중 3.4%인 17만개가 맞춤형 천연세정제 관련 게시물로 밝혀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 중인 비누·세제의 시판품 조사를 실시, 품질 표시사항 및 소비자 주의사항 정보 미흡 제품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제품과 KS인증제품의 표시사항에 인체안전성(피부자극성 등), 기능성첨가제 항목을 반영시켜 소비자 안전 확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도어록, 자율안전확인 의무제도 시행

○ 가정 및 사무실 출입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도어록에 대해 화재시 비상대피가 쉽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나 간단한 작동요령 숙지로 해결이 가능하다

□ 안전성이 강화된 KS마크 또는 안전(KPS)마크 부착 인증제품을 구입·사용하고, 정확한 작동요령을 숙지하면 화재 발생시에도 디지털도어록을 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 안전(KPS) 마크 : 자율안전확인마크(Korea Product Safety)

○ 인증제품은 화재 대비시험 및 전기충격시험 등 여러 가지 정밀시험을 거쳐서 성능과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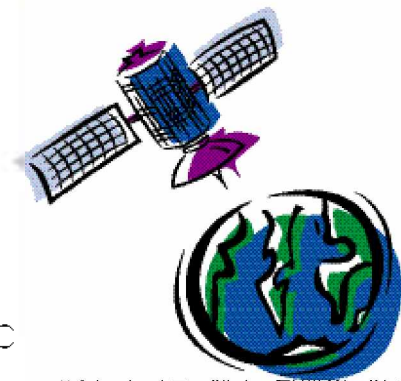
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 현재 KS마크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주)대양D&T, (주)싸이트론, (주)유니코하이테크, (주)코리아신에 등 4곳이다.

□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시 디지털도어록의 정확한 작동요령 홍보도안을 마련하고 올바른 제품 사용요령 홍보에 적극 나섰다

화재시 비상 작동요령

- ◆ 평소와 같이 자동개폐장치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나간다.
- ◆ 자동개폐장치가 작동이 안 될 때에는, 수동개폐장치를 열림 위치로 돌린 후,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나간다.



○ ...와 함께 보급되도록 할 예정이며,

-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반상회를 통해 배포함과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도 연계시킬 계획이다.

- 그동안 기술표준원은 디지털도어록이 고온(270℃)에서도 쉽게 작동되도록 하고, 노약자가 용이하게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KS규격을 개정하는 등 안전성 강화에 노력해 왔다.
-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오는 3월 24일부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디지털도어록에 대해 사업자가 판매 전 반드시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KPS) 의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 앞으로도 안전한 디지털도어록만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평가하는 등 제품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각국의 기술규제 정보, 전자우편으로 쉽고 빠르게

- 국내 수출업체들은 세계각국의 신규 기술규제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되는 각국의 기술규제 공산품분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에 확산 보급하기 위한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를 2월 1일(목)부터 개시하였다.

- 자동경보서비스는 외국의 기술규제 변동사항에 대한 통보문을 제품분야별로 분류하여 관심있는 해당 업체에 전자우편으로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는 서비스로 수출기업들이 수입국의 기술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제공되게 되었다.

- 기존의 검색서비스를 통한 수동적인 정보제공 방식을 탈피해 수출기업, 단체와 기관 관계자 등 실무요자들이 간단한 회원가입절차에 의해 쉽게 기술규제정보를 얻도록 한 능동적인 서비스

- 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기술규제 내용이 요약된 통보문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안의 전체 본문을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규제내용의 과학적 기술적 타당성이나 규제의 도입시 아국 수출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는 국내·외 관련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된 의견은 통보된 기술규제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거나 사안에 따라 제안된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국내 기업들이 미리 적절히 준비하는데 활용된다.

○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제 개정사항을 알려주는 통보문은 연평균 700건 정도에 이르며, 공산품 분야에서 06년에 보급한 주요내용으로는 EU의 RoHS 예외추가품목지정(EEC/122), 미국의 EPA의 자동차 환경규제(USA/174)관련 7건 등 국내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환경규제관련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 통보된 기술규제의 내용이 국민의 보건, 안전 또는 환경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등의 경우, 특히 해당규제가 적용될 경우,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직접 또는 WTO/TBT 위원회에서 이슈로 제기하여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본 서비스는 해당사이트로 접속 후 회원가입, 대분류 선택(9개), 가입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한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회원가입 희망자가 공산품, 식의약품, 농산물, 수산물 등 분야의 50개 세부분야에서 관심있는 분야들을 선택하면 해당분야의 통보문만 전자메일로 전달되게

된다.

※ 대분류 9개 분야 : 에너지물류, 전기전자, 기계건설, 화학세라믹, 정보디지털, 생활용품, 바이오환경, 소재나노, 기타 등

○ 기술표준원은 자동경보서비스를 수출기업, KORTA 등 무역관련기관, 업종단체, 협회 등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규제관련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 표준 2007. 2

